

장거리 운행 이후 차량관리 어떻게?

자녀의 방학을 이용해서, 혹은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친지와 함께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여름은 이런 기회가 많은 계절이다. 여행은 기분을 전환과 정신적 에너지 비축 등 사람들에게 유·무형의 자산을 남기지만, 하루에도 수백 마일씩 이동해야 하는 차량은 컨디션이 떨어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장거리 운행 후의 차량 관리를 필수이다.

■ 점화플러그 점검

점화플러그는 연소실 내부에서 불꽃을 일으키고 연료를 태워 엔진 출력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점화플러그가 마모되면 이 불꽃이 점차 약해지고 완전 연소를 유도할 수 없어 연비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정체를 등으로 가속과 제동을 반복해 점화플러그를 혹사시켰다면 교체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

■ 브레이크 패드 점검

브레이크 패드는 브레이크 디스크와 직접 접촉해 빠르게 회전하는 브레이크 디스크를 붙잡아 차량을 멈추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거리 운행을 할 경우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브레이크 패드 역시 마모될 수밖에 없다.

노면이 뜨거운 여름에는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이 가열되어 발생할 수 있는 경화현상에 유의해야 하고, 브레이크는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작동 시 소리가 나거나 평

소보다 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곧바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 꼼꼼한 세차와 관리

벌레나 새의 분비물 등이 차량 외부에 묻었다면 마르기 전에 청소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배설물이 말라 강산성으로 변하면 제거하기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오염물질이 말라붙은 경우는 단백질 제거 기능이 있는 전용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비포장도로를 운전했다면 차량 하부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돌부리나 웅덩이로 인해 차체에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격이 느껴졌을 경우 주차 후에 차량 밑에 유색의 액체 자국이 보인다면 오일류가 새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를 받아야 한다.

바닷가를 운행했다면 소금기를 깨끗하게 씻어내 줄 수 있는 고압세차는 필수다. 소금기는 자동차 외부뿐만 아니라 차체 하부를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차 시 하부까지 꼼꼼하게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오염된 시트를 청결하게

장거리 주행으로 지루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했다면,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나 음료수 때문에 세균과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매트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깨끗이 청소하고 음료수자국은 물걸레로 닦아준다. 시트는 전용 세척제를 사용해 찌든 때를 제거해주면 된다.

기아차 스팅어·리오, JD파워 1위

기아차 스포츠세단 스팅어(사진)가 미국 자동차 평가기관 JD 파워의 오너(차량 소유주) 만족도 조사에서 벤츠 C클래스, BMW 3·4 시리즈를 제치고 콤팩트 프리미엄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새롭게 바뀐 디자인의 2018년형 리오도 소형차 부문에서 1위를 차지, 기아차는 2관왕에 올랐다.



는 '올해의 시프트(기어)상'을 받았고 유럽 시장에서도 '올해의차' 후보에 올랐다. 북미 시장에서도 '2018 북미 올해의 차' 승용차 부문에서 BMW 5시리즈, 아우디 A5 스포츠백, 포르세 파나메라를 제치고 최종후보(파이널리스트)에 오른 바 있다.

3월 '오토모비트월드'에 따르면 JD 파워가 90일이 지난 신차 차량 소유자 8만 명을 대상으로 20개 차급에 걸쳐 신차 오너 만족도를 조사하는 '어필(APPEAL, 성능·실행·디자인) 테스트' 결과, 스팅어는 컴포트(안락)와 피쳐·인스트루먼트패널(내부디자인·기능), 스타일 항목에서 각각 5점 만점을 얻는 등 두루 높은 점수를 따내 13개 경쟁 차종에 앞서 부문 최고점을 기록했다.

스텅어가 제친 모델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아우디 A4·A5, BMW 3·4시리즈, 렉서스 IS, 볼보 S60, 캐딜락 ATS 등 해외 유명 자동차 브랜드가 즐비했다. 퍼포먼스(성능)에서는 벤츠 C클래스가 앞섰으나 종합점수에서 스팅어에 뒤졌다.

스텅어는 올해 초 IT매체 시넷(CNET)이 자동차 부문에서 평가하

스텅어는 패스트백 스타일의 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고급 중형 '스포츠 세단'이다. 기아차가 1981년에 단종된 피아트 132 이후 36년 만에 내놓은 후륜구동 중형 모델이다. 스팅어가 후륜구동 중형 모델을 다시 살려낼 만큼 이 모델은 기아차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

스몰카 부문에서는 기아차 리오가 쉐보레 볼트, 도요타 프리우스C, 혼다 피트 등을 제치고 최고점을 얻었다. 리오는 총체적 성능, 디자인, 편안함, 특징, 스타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유일한 소형차였다.

한편 이 조사에서 현대자동차의 고급브랜드 제네시스는 가장 매력적인 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2위였다. 제네시스가 1위를 차지하면서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포르쉐는 2위로 내려갔다.

오렌지카운티

장스바디종합정비센터

CHANG'S AUTO BODY & REPAIR

40여년의 변하지 않는
- 마음씨 좋은 사람들 -

정비부

- 컴퓨터 점검수리 ■ 전기일체
- 브레이크 ■ 튼업, 라디에타
- 에어컨디션 ■ All Brand Tire
- 엔진, 카브레타, 트랜스미션

바디부

- 최신 컴퓨터 시스템
- 후레임머신 설치 ■ 무료도잉
- 보험수리 전문취급 ■ 무료견적
- 후레임 Work & Welding

3만, 6만, 9만마일 Service /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

매니저 Simon An

714.891.1950

1-800-277-2639

Email : changsauto@gmail.com

7601 Garden Grove Bl. G.G CA 92841